

“투표 꼭 참여해 내란 종식·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 5개구 청장이 2일 광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양부남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정선 교육감·5개 구청장 투표 독려 기자회견 거소투표소 확대·교통약자 투표지원차량 무료 운행 등 편의 제공

광주지역 광역·기초지자체장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92.5%투표율을 달성을 위한 독려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에게는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한 선거관리에 나서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돌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선거이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도.

2일 오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 5개구 청장이 합동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의 가장 큰 나쁜 결과는 나라를 두 동강 내는 극단적 편 가르기와 끝날 줄 모르는 음모론”이라며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며, 선거 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결정적 장애물이 되는 점에서도.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막기 위해 후보는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하고, 선거위는 엄정한 선거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울 가장 큰 힘은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집단지성이고 집단지성의 힘은 투표 참여로 발휘된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투표가 힘입니다’ 캠페인 실천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광주지역에서는 52.1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앞서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지난달 12일 ‘광주 역대 최고 투표율 92.5% 향환 적극행정... 광주시·교육청·자치구, 6대 실천 약속’을 제시했다.

이동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거소투표소 확대와 교통약자 투표지원차량인 새빛콜 무료운행을 적극 홍보해 실질적인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17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대학생과 교직원

의 투표약속 참여를 했으며, 전남대·조선대·광주 청년센터 등에서 릴레이 캠페인도 벌였다.

지역 노동자들의 투표권 확보를 위해 지역의 경제 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 및 산업단지, 택배·배달 노동자 등과도 협력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제과·음식·커피 등 할인이벤트, 오월광주 나눔세일(49개 업체)과 연계한 ‘6·3 투표행’ 나눔세일도 진행하고 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18세 고등학생 등 1020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위해 고등학생의회 회장단 68개 대표, 광주학생의회의장협의회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또 광주지역 357개 투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접근성이 부족한 13곳의 투표소에 대해서는 1층 우선 설치, 임시 기표소 마련, 안내요원 배치 등 개선조치를 벌였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본투표일에 ‘투개표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유권자 투표 보장에 힘쓴다.

강 시장·이 교육감·5개 구청장은 “이제 시민들이 마지막 점을 찍어주셔야 한다”면서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 독려를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투표 참여로 나서면 투표율 92.5%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출산율 증가 효과 ‘톡톡’

1분기 합계출산율 1.13명... 지난해 1분기보다 6.5% 증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출생기본수당’이 출산율 증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분기 전남도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 높은 수치로, 올 1·3월 누적 출생아 수는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출생아 증가를 ‘출생기본수당’ 정책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시행하고 있다.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받

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대를 회복(1.03명)한 이후 상승 곡선을 이어간 데에는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기존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일회성 지원을 벗어나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특히 출생기본수당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돼 출생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수당이 자녀의 나이 18세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응답이 많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총력

전남도가 오는 2028년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전남도는 2일 “여수시청에서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유치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동서포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YMCA, 여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 민·관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8개국 이 참석한 기후변화협약 이행 방법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이다. 33차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유치 의사를 표명한 지역을 대상으로 아·태지역 그룹에서 협의의 통해 개최국이 결정된다.

전남도는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여수시와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유치 모델을 통해 유치 기반을 넓히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정과제 반영, 국가 유치 의사 표명, 아·태지역 그룹 내부 협의 결정, 개최 도시 확정을 목표로 한 유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COP33은 대한민국이 기후 리더십을 세계에 천명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민주당 광주선대위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홍보단 운영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회가 광주지역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바지 대시민 호소를 펼쳤다.

2일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해야 내란을 극복하고, 광주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부남(서구 을) 민주당 광주시장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민형배(광산 을)·박

군택(광산 갑)·안도걸(동남 을)·전진숙(북구 을)·전진옥(동남 갑)·조인철(서구 갑)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 선대위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당의 승패를 가르는 선거를 넘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면서 “광주가 다시 민주주의를 선택할 시간이고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시간이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선대위는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과의 대결’로 규정하고 “5·18 민주영령들과 미래 후손들에게 당

당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광주의 발전을 책임질 준비된 지도자”라면서 “광주를 AI 국가시범 도시로 만들고, 광주의 숙원인 군 공항 이전 문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6월 3일 광주시민 모두가 투표장으로 우리가 싸워 지킨 민주주의와 광주를, 그 자존심을, 내일 반드시 지켜내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선대위는 이날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독려하기 위한 자전거 홍보단을 운영하기도 했다.

자전거 홍보단 50여 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을 출발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까지 약 10km 구간을 주행하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